

다산포럼

송기숙 교수의 최후진술



김 정 남 언론인

최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토론 절차나 합의 과정 없이 국가교과서를 국정화의 방향으로 막무가내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전남대 교수 11명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육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당일로 11명 교수 전원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고 뒤이어 해직되었으며,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송기숙 교수는 구속되었다.

이때는 유신정부의 비위에 안 맞는 교수들은 교수재임명제로 추방되고, 남아 있는 교수들은 지도교수제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도서관 앞에서 몇 시부터 몇 시, 누구는 사범대학 벤치 앞에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식으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보초를 서면서 학생들을 감시해야만 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교수들이여! 당신들의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처음엔 존경과 믿음으로, 나중에 이해와 동정으로 기다려왔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1979.10.19.서울대 학원민주화 투쟁선언)라고 했을까.

기 고



유 근 기 곡성군수

농촌 살림 집 마당 한 칸에 피어 있는 소담한 장미의 아름다움이 그윽하다. 12월의 장미가 오월의 정원에 흐드러진 것보다 더 곱고 사랑스러운 것은 제철을 지나 꽃을 피워내기 위한 인고의 안쓰러움 때문이다.

김장을 끝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 햅쌀과 고구마, 감이며 김장김치를 순차적으로 바리 써듯 해 자녀들에게 안겨 준 뒤 마을회관에 돌려앉아 한담을 나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겨울 장미의 은은한 향기를 닮았다.

정춘 특·특



도 선 인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

2015년 대학생들은 바쁘다. 자신의 삶을 걱정하며 계획하고 바쁘게 살아간다.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조차 못하는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에 열중한다. 누군가는 미처 구하지 못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준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최저 시급도 안 주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한다.

개인의 삶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속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

송기숙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전남대 교수들은 ‘우리의 교육지표’에서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계 안팎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우리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 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제정 경위 및 선포 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 치하의 교육칙어를 연상케 한다”면서 “교육의 참현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 4개 항의 교육지표를 제시하였다.

김찰은 송기숙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마치 국민교육헌장이 제정·선포 과정에서 행정부 독단으로 추진되고, 내용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는 양,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고 그 공소이유를 밝혔다.

송기숙 교수가 구속되자 전남대생들은 6월 29일 “일제히 일어나서 먹구름 뒤의 하늘을 보자”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침묵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의 스승들이 민주교육선언에 일어난 패거는 압축을 깨치고자 일어난 자각이요 양심의 회복”이라고 스승들을 엄호하고 나섰다.

나는 홍성우 변호사의 이 사건 변론 준비를 위하여 동대문 헌책방을 뒤져 민주교육헌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변론자료로 쓰거나 증거로 제출하는 데 일조를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 재판에서의

압권은 송기숙 교수의 최후진술이었다. 나는 송기숙 교수의 최후진술에 감동, 이 최후진술을 정리·복사해서 조심조심 널리 뿌렸다.

“작년 가을 서울대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을 때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더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나는 바로 내 가슴팍을 돌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 자신이나 나의 동료들이 학원에 서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학생들의 행동을 나무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최후진술은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비판을 검찰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렇게 항변한다. “우선 교육헌장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견해의 표시가 사실 왜곡이란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나 자신이 저술한 작문 교과서가 금년부터 사용되는 데 거기서도 무릇 진술이란 사실의 진술과 의견의 진술,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썼다. 국민교육헌장이 행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제정·공포되었다는 것은 나의 의견이다. 교육헌장 제정이 행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교육헌장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다는 것도 나의 의견이다. 나는 국가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국가보다도 개인의 중요성, 인간의 존엄성,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이고 국가주의가 아닌 것이다.”

송 교수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나는 구태여 나를 풀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다. 나는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나로 인해 많은 동료 교수들이 희생되고,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여러 명이 중형을 받는 마당에 나 혼자 나가게 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러나 진실을 위해 판결해 줄 것만은 당부하겠다. 나 자신 소설가로서 이 시대의 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 믿고 재판을 받고 들어갈 때마다 그날 있었던 일하나, 표정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애쓰곤 한다. 재판부의 결정이 진실에 어긋나다고 생각될 때에는 뒷날 그렇게 증언할 것이다.”

국가교과서 문제가 나왔을 때, 내용을 시정하는 것은 몰라도 국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대하던 몇몇 언론들이 어느덧 앞잡이로 돌아서고 있다. 유신 때 그것을 지지하는 어윤의 무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듯이, 턱없이 국정교과서에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저자 미상의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송 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현상 하나하나를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겠다. 언젠가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역사를 증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12월의 장미’를 보셨나요?

한 관심은 올 한해 360여 세대 630여 명의 가족이 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해 새 희망의 꿈을 펼쳐 나가고 있다.

군민들이 모이고, 만들고, 고치는 ‘귀농·귀촌 유지정책’은 ‘정부 3.0 디자인단’ 10개 팀 과제 가운데 대상인 ‘창조정부상’을 받는 보람으로 화답했다.

지역사회를 한히 밝혀 줄 탐스러운 장미 두 그루도 튼실한 뿌리를 내렸다. 민선 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에 공기업 두 곳이 터를 잡게 된 것이다. 우리 고장 캔드마크인 ‘섬진강 기차마을’과 인연을 맺은 코레일과 계열사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직원들의 연수원이 섬진강 자락에 들어서고, KTC 호남본원이 설치되는 산업용 직무기 성능 시험 센터가 육과 권역에 자리하게 된다.

이 공기업들은 관련 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광 곡성’ 브랜드 마케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3만여 평 부지에 1004종의 세계 장미 3만7500여 그루가 환상적인 멋과 향을 뽐

내는 기차마을 장미공원에는 지난 5월 축제에 군 전체 인구의 7배인 21만1000여 유료 입장객의 발걸음이 붙었다.

이곳은 몇 해 전 미국 CNN이 ‘한국에서 가 볼만한 곳 50곳’ 중 하나로 선정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관광의 별’로 떠올라 군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는 신 설명이 필요 없다.

‘함께해요, 희망 곡성’의 기치 아래 군 살림을 이끌며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SA 등급을 받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방자치 경영 ‘종합 대상’이라는 발자국을 남긴 것 또한 2015년을 아쉽게 마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무릇 세상은 물 길, 돈 길, 마음 길이 원만하게 열리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렇다. 자치단체의 대표 머슴으로서 군민들의 ‘마음 길’을 여는데 ‘12월의 장미’인들 여려라.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다. 그러나 12월은 늘 끝인 듯 하면서 또 다른 시작이라는 소화가 남다르다.

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정치’임을 알고, 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요구를 하는 것이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서 행동하는 청년이, 청년들의 정치 공동체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취업과 관련 없는 쓸데없는 일은 터득욕 아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정치이며, 소박한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정치이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다. 팍팍한 대학생들의 삶 속에도 어느덧 새해가 성큼 다가왔다. 2016년에는 끝까지 싸우고 행동하는 대학생들의 신나는 정치 공동체가 곳곳에서 작지만 큰 바람을 불러 오길 소망해 본다.

社 說

지산유원지 30년 넘은 모노레일 관촬했나

10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던 무등산 지산유원지의 관광열차(모노레일) 재운행이 추진된다고 한다. 옛것에 같은 장소에서 리프트가 추락 사고가 터진 상황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리프트카를 타던 한 부부가 안전그물에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 여파로 다른 승객 10명이 공중에 고립됐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다. 모노레일 재운행을 추진하는 업체는 바로 이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카 운영사와 같은 회사다.

재가동을 준비 중인 모노레일은 1980년 설치된 이후 지난 2005년 폐업 신고로 운행을 중지한 바 있다. 설치된 지 30년, 방치된 지 10년이 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해부터 지산유원지 정상부에 있는 모노레일 수리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상 50m에 설치된 기초 선로를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개보수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이 모노레일은 지난 7월 전문기관의 안전검사에서 ‘기초부 부식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며 불합격이 통보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모노레일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해당 업체는 도색 작업 등을 다시 한 후 지난 11월 초 2차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아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문 식견이 부족하더라도 모노레일은 설치된 지 30년 넘게 자연에 노출돼 있어서 철제설비와 연결 부속 등이 심각하게 낡았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리프트카나 모노레일의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때문이다. 광주의 대표적인 유원지에서 불상사가 재발한다면 지역 이미지 훼손도 심각할 것이다. 당국과 업체는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재운행 계획 취소 등의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남 한우 홍콩 수출…친환경이 역시 답이다

전남에서 생산된 ‘구제역 청정’ 한우가 국산 한우로는 처음으로 홍콩 수출 길에 올랐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협 나주 축산물공판장 등에서 도축한 60마리의 쇠고기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 포장돼 어제 항공편으로 홍콩에 보내졌다.

한우 수출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산 한우의 홍콩 수출은 우리나라와 홍콩 간 검역위생 협상에서 ‘1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남산 한우의 홍콩 수출은 비록 물량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좋은 맛과 엄격한 품질 관리 등으로 전남산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산 한우는 풍부한 일조량을 받

고 자란 양질의 조사료로 사육돼 품질이 우수하다. 여기에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축산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수출되는 전남산 한우고기는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사업단에서 확보한 물량이다.

도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고급육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우 개량사업을 통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출 품목은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정남진 장흥농협의 표고버섯을 비롯해 전남산 골드키키와 전복 그리고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 등이 최근 홍콩·일본·중국 등으로 수출됐다. 친환경 농·수·축산물은 시장개방 환경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FTA를 넘어서 우리 농촌을 지켜낼 보루는 역시 ‘친환경’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無 等 鼓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완공돼 개통된 것은 지난 1984년 6월 27일이었다. 1981년 10월 착공한 지 33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비롯해 내무·건설·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담양 인터체인지에서 개통 테이프를 끊은 후 지리산휴게소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개통을 기념해 영호남 총각·처녀 8쌍의 합동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담양군 고서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을 연결하는 175.3km 길이의 새 고속도로는 기존 국도(195km) 이용 시 5시간 걸리던 거리를 2시간30분으로 단축시켰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총공사비 2039억6900여만 원에 연인원 520만 명, 58만4000대의 각종 중장비가 동원됐고, 시멘트 1013만8000부대와 철강 6351t, 철근 3만7584t이 투입됐다. 광주일보는 “천년벽을 헐어내고 영·호남이 한길로 이어졌다…”는 첫 문장으로 개통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편도 1차선인 데다 시멘트 포장으로 사공됐고, 중앙분리대마저 설치되지 않았다. 제한속도 역시 시속 80km에 불과했다. 자연히 선

두에 화물차가 앞서가면 그 뒤로 차량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잇따랐고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썼다. 갓길에는 ‘출면 죽음’이라 쓰여 있는 깃발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러했던 88고속도로가 오는 20일 편도 2차선으로 확장돼 개통된다. 당초 광주시와 대구시 양 자치단체는 새 고속도로 이름으로 동서화합 차원에서 옥포면을 연결하는 175.3km 길이의 새 고속도로는 기존 국도(195km) 이용 시 5시간 걸리던 거리를 2시간30분으로 단축시켰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총공사비 2039억6900여만 원에 연인원 520만 명, 58만4000대의 각종 중장비가 동원됐고, 시멘트 1013만8000부대와 철강 6351t, 철근 3만7584t이 투입됐다. 광주일보는 “천년벽을 헐어내고 영·호남이 한길로 이어졌다…”는 첫 문장으로 개통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편도 1차선인 데다 시멘트 포장으로 사공됐고, 중앙분리대마저 설치되지 않았다. 제한속도 역시 시속 80km에 불과했다. 자연히 선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첫 글자를 따 ‘달빛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점과 종점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표기하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약정 광대 고속도로)로 확정했다.

확장된 새 고속도로는 영·호남 교류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기존 도로명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영·호남 화합과 동반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징성을 담아 ‘달빛 고속도로’로 명명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